

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회의록

I. 일 시 : 2026. 1. 12.(월), 17:00 ~ 18:00

II. 장 소 : 군산시청 상황실(4층)

III. 주요내용

- 2026년 제14회 군산시간여행축제 개최 일정 의결
-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논의

IV. 참석자 현황

□ 구성원

소 속 / 직 책	성함	참석 여부	소 속 / 직 책	성함	참석 여부
군장대학교/새만금CEO교육원장	손승건	○	청년포럼 / 상임이사	장정수	○
호원대학교/푸드창업학과 교수	김나형	×	생활문화동호회 / 감사	권상희	○
군산시민회의/분과위원장	이미아	○	월명동 / 통장협의회 회장	임광빈	○
군산4H연합회/사무국장	박거세	×	군산상공회의소 / 팀장	김승주	○
군산시의회 / 의원	김영란	○	전주대학교/관광경영학과 교수	심우석	×
전북일보 / 부장	이환규	○	군산대학교/미디어문화학부 교수	오원환	×
청년포럼 / 자문위원	김정훈	○	군산시 / 부시장	김영민	○
(주) 봉속 / 대표	김한솔	×	군산시/문화관광국장	김봉곤	×
군장대학교/패션산업과 교수	이지현	×	군산시/관광진흥과장	김문숙	○
비 고					

□ 개 회

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손승건위원장의 회의 개최 선포

□ 인사말씀

○ 김영민 부시장

- 총감독제 도입에 따른 축제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장단점이 있었음
- 타 시군과는 달리 군산은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축제를 구성하여 경쟁력이 있음
-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이 필요함

□ 회의내용(사회 : 축제지원계장)

1. 2026년 제14회 군산시간여행축제 개최 일정 의결

○ 축제지원계장 : 축제일정에 대한 3가지 안에 대한 설명

- 1안 : 10.1. ~ 10.4. / 2안 : 10.2. ~ 10.5. / 3안 : 10.8. ~ 10.11.

○ 김정훈 위원

- 타 지역 축제 개최기간 질문

⇒ 축제지원계장 : 김제 지평선축제는 10.1.~5., 임실치즈축제는 10.8.~11. 개최예정
대전 0시축제는 8월에 개최되어 우리와는 일정이 맞지 않음

○ 이환규 위원

- 방문객 입장에서 평일이 많이 포함되면 부담이 크며, 여유롭게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주말과 휴일을 충분하게 활용해야 함
- 주말과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2안(10.2.~10.5.)을 추천함

○ 장정수 위원

- 김제 지평선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 시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각 축제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방문하게 됨.
- 인근지역의 축제를 관람한 뒤, 군산이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하면 조금의 시차를 두고 자연스럽게 우리 축제에 방문하게 되므로 2안(10.2.~10.5.)을 추천함

○ 제2안(10.2.~10.5.)에 대한 참석 위원 전원 동의로 가결

2. 2026년 군산시간여행축제 발전방향 논의

○ 김영란 위원

- 2026년 추진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범위 및 시기에 대한 질의
⇒ 축제지원계장 :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신규위원 위촉 4명 정도이며, 2월 중 위촉 예정(기존위원 임기 : 26. 2. 10. 까지)
- 새로운 위원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 후 벤치마킹이 가능한 타 지역 축제 방문 추진 제안

○ 손승건 위원장

- 최근 김천 김밥축제가 크게 성공하였으며, 성공요인 중 관람객 중심의 축제 구성을 주목함
- 개·폐막식에서 반복되는 의전 요소를 제거한 점이 축제 몰입도를 높였으며, 군산시간여행축제도 의전형식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
⇒ 관광진흥과장 : 문화관광축제 평가기준에도 불필요한 의전 축소가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, 시민과 관람객 중심 운영을 위해 여러 요소를 검토하겠음

○ 김정은 위원

- 전년도 총감독 중심 운영으로 축제의 기존 정체성과 시민 참여가 약화됨
- 총감독제를 유지할 경우, 축제 운영과정에 대한 논의 및 불필요한 지출 등을 위원회에서 점검해야하며, 필요 시 시민감독제 등의 도입을 제안함
⇒ 위원장 : 제안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검토할 요소가 많음
⇒ 축제지원계장 : 외부에서 총감독제 도입 권고가 있었으며, 운영결과 장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내부적으로 운영방식을 검토 후 결론을 추진위원회와 공유하겠음
- 전년도 축제에서 일부 구간에만 관람객을 집중시킨 운영방식이 지역특성과 맞지 않았으며, 군산은 구석구석 볼거리와 이야기가 많은 도시이므로 권역별 콘텐츠 분산과 공간확장을 통해 시 전반을 축제장으로 활용해야함
⇒ 위원장 : 지속적으로 제안되는 의견이며, 셔틀버스 운영과 동선 재설계 등의 공간확장 방안 검토가 필요함

○ 이환규 위원

- 대부분의 축제는 17~18시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데, 우리축제는 차별성을 위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함
- 가족 및 연인단위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야간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체류형 관광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- 구.군산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도입 제안

□ 폐 회

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손승건위원장의 회의 폐회 선포 (18시 폐회)